

# “플랫폼·기술·상품 차별화… 고객 연계 금융혁신 1등 자신”

## IPO 간담회

### 카카오뱅크

금융 모바일 앱 월간·주간방문 1위 이용자 10~50대 전 연령대 증가세 카톡·모빌리티 등 그룹사 시너지 주담대·마이데이터 등 확장 기대

“고객이 많이, 자주 쓰는 게 바로 혁신이다.”, “상품을 파는 것(Selling the products)보다 (고객 입장에서)문제를 해결하는 것(Solving the problems)에 집중해 왔다.”

회사에서 ‘대니얼’로 불린다며 자신을 소개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는 20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에서 고객과의 연계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성공한 플랫폼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뽑는 핵심 성공 요인이 트래픽과 인게이지먼트(Engagement)”라며, 그런 차원에서 월간·주간 방문자수가 1위인 카카오뱅크가 단연 국내 1위 금융 플랫폼이라고 자신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가 IPO 기자간담회에서 회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크가 단연 국내 1위 금융 플랫폼이라고 자신했다.

지난 2017년 대고객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뱅크는 현재 1615만명의 사용자(국내 경제활동 인구 대비 57%)를 확보하고 있다. 월간활성사용자수(MAU) 1335만명(닐슨미디어 디지털 데이터 기준)으로 금융 모바일 앱 부문 1위다.

주거래계좌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요구불예금 잔액이 증가하고 있고, 이용자층이 10대와 50대 이상을 포함한

전 연령대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은 긍정적이다.

카카오뱅크는 향후 주택담보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방카슈랑스, 보험 등 다양한 상품을 소개하며 성장을 추동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외 마이데이터 사업, 자체 문자판독기술과 같은 B2B 솔루션 판매, 해외 기업 지분투자과 핀테크 기업 조인트벤처 등으로 사업 영역도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

윤 대표는 카카오뱅크의 저력으로

▲기술력과 기업문화 ▲카카오 에코시스템 ▲안정적인 성장성과 수익성을 꼽았다.

먼저 카카오뱅크는 기존 금융회사가 요건을 정하고 개발은 외주를 맡기는 것과 달리 앱 개발부터 전사적인 참여를 시도한다고 밝혔다. 기업 문화의 차이로 앱의 완결성과 상품의 차별성을 확보했다.

카카오톡,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브레인 등 다양한 카카오 그룹사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던 점도 장점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의 사업 영역이 겹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뱅크는 은행업, 페이는 증권과 보험 및 결제를 바탕으로 한다”며 “서로 경쟁하고 협업하면서 전통시장을 모바일 스탠드 시장으로 빠르게 변화시켜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향후 빅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등에서 시너지를 내 계단식 성장을 이루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사업개시 후 4년간 여·수신 연평균 64% 성장, 이자·비이자 영업수익 연평균 127% 증가, 출범 1년 반 만에 흑자전

환 성공이란 남다른 성장 지표도 공개했다.

카카오뱅크가 오는 2023년까지 중금리·중신용대출을 30%까지 확대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건전성이 악화될 거란 우려엔 “신용평가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중인데다 전체 시장에서 비중이 큰 주담대 등의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어서 여신 확장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IPO를 통해 6545만주의 신주를 발행한다. 공모로 조달한 자금은 자본 적정성 및 우수 인력 확보, 고객 경험 혁신 및 연구개발(R&D), 글로벌 진출 등에 다양하게 쓰일 예정이다.

1주당 희망 공모가는 3만3000~3만9000원이며, 최대 약 2조5526억원의 자금을 확보할 예정이다. 오는 22일 공모가를 확정 후 26일과 27일 양일간 청약 받는다.

국내 일반 청약자들은 KB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현대차증권을 통해 청약할 수 있다. 상장 예정일은 8월 6일이다.

/양유경 기자 noon@metroseoul.co.kr

## 직방-롯데건설, 메타버스 활용 ‘프롭테크’ 활성화

엔택트시대 주거문화 선도 맞춘 오프라인 디지털 갤러리 개발 등 주택사업 전반 디지털 전환 속도

직방은 롯데건설과 부동산 프롭테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직방과 롯데건설은 프롭테크로 건설 분야의 혁신을 도모하고 엔택트 시대의 주거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협약은 지난 16일 체결됐다. 프롭테크(propotech)란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IT 기술을 접목한 부동산 서비스를 가리킨다.

양사는 각자 보유한 역량과 인프라를 연계해 미래 지향적인 사업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프롭테크 사업 추진 및 경쟁력 강화 ▲오프라인 디지털갤러



직방이 자체 개발한 메타버스 공간 '메타폴리스'에 롯데건설 건물을 구현한 이미지. /직방

리와 메타버스를 활용한 공간 개발 ▲분양 광고 디지털 마케팅 강화 ▲프롭테크 활성화 협력 등이 협약 내용에 담겼다.

직방은 롯데건설이 주택 사업 전반에

서 디지털전환(DX)에 속도를 높이고 메타버스를 활용해 고객 소통을 강화하는 것을 도울 방침이다. 특히 롯데건설은 직방이 자체 개발한 메타버스 공간 '메타폴리스(Metapolis)'를 적극 활용

할 계획이다.

롯데건설은 디지털전환의 첫걸음으로 자사의 대표 주거 브랜드인 '롯데캐슬'의 브랜드관을 롯데백화점 대구점에 건립 중이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직방이 가진 IT 기술을 활용해 롯데건설의 디지털 전환 파트너가 돼 기쁘다”면서 “직방의 VR, 3D, 빅데이터, 메타버스 기술로 롯데건설을 도와 양사가 시너지를 내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롯데건설이 건설업계에서 메타버스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다”며 “직방이 보유한 프롭테크 기술을 활용하고 엔택트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시장 트렌드와 고객 니즈를 반영해 지속 가능한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연우기자 ywj964@

##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 모빌리티 테마 ETF 2종 상장 이벤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신규 상장하는 글로벌 테마형 TIGER 상장지수펀드(ETF) 2종 거대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신규 상장하는 ETF는 ‘TIGER 글로벌 자율주행&전기차 SOLACTIVE(솔랙티브) ETF’와 ‘TIGER 글로벌 리튬&2차전지 SOLACTIVE ETF’다.

‘TIGER 글로벌 자율주행&전기차 SOLACTIVE ETF’는 자율주행과 전기차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자동차 산업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과 융합해 자율주행과 전기차가 완전히 패러다임이 변화했다는 평가다. 기존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 기업들도 미래차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추종지수는 ‘SOLACTIVE Autonomous & Electric Vehicles Index’다. 지수는 ‘엔비디아’,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토요타자동차’, ‘애플’, ‘테슬라’ 등 선진국뿐 아니라 한국과 대만에 상장된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기업 75종목으로 구성된다.

‘TIGER 글로벌 리튬&2차전지 SOLACTIVE ETF’는 리튬 채굴부터 2차전지 배터리, 완성차 업체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배터리 관련 산업 전반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2차전지는 각국 친환경 정책의 바탕으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배터리 핵심 소재 시장도 성장이 예상된다. 이종 리튬은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도가 높아 ‘백색 원유’로 불리며 대체 불가능한 원자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TF 추종지수는 ‘SOLACTIVE Global Lithium Index’다. 지수는 ‘CATL’, ‘EVE Energy’, ‘BYD’ 등 리튬 탐사 및 채굴, 리튬 배터리 생산 관련 글로벌 기업 20~40종목으로 구성된다.

/송태화 기자 avin@

## 신영증권 ‘최근 1년 퇴직연금 수익률’ 1위

작년 4분기부터 3분기 연속 최고

신영증권이 3분기 연속으로 ‘최근 1년 퇴직연금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

신영증권은 지난해 4분기부터 올 2분기 말까지 3분기 연속으로 1년 수익률이 확정 급여형(DB)·확정 기여형(DC)·개인형 퇴직연금(IRP) 전 부문에 걸쳐 전체 퇴직연금 사업자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신영증권의 IRP와 DC형 1년 수익률은 각각 21%, 17.62%다. IRP 수익률이 20%를 넘긴 사

업자는 신영증권이 유일하다. DB형 수익률도 6.7%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한 과거 수익률이 미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퇴직연금상품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 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임재경 신영증권 연금컨설팅부 이사는 “엄격한 투자상품 선정, 분산투자 원칙,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 체계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한 덕분”이라며,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노후 준비에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유경 기자

## 화상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서비스 제공

거래소, 불공정거래 근절 투자자 보호

한국거래소는 화상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상장법인의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예방을 통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다.

거래소에 따르면 매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는 불공정거래 혐의사건 중 내부자·준내부자 관련 사건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7년 43.0%에서 2018년 67.6% 수준으로 크게 오르더니 2019년 73.3%, 지난해 62.6%를 기록 중이다.

2017년 2월부터 시작된 상장법인 대

상 방문 컴플라이언스 컨설팅이 실시된 배경이다. 지난달 말까지 컨설팅서비스를 받은 회사수는 총 171사다. 2020년 이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방문을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자가진단하는 서비스로 전환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상장법인의 비대면 소통이 익숙해짐에 따라 올해도 화상 컨설팅으로 진행된다. 상장법인 중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이 대상이다. 거래소는 “컨설팅서비스가 내부통제 취약법인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처방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송태화 기자